선각 기상인 - 와다(和田)의 포켓북

일용편람(日用便覽):1913년

기상청 연구관 전 영 신

언제였던가? 한 쪽 한 쪽 조심스레 넘길 때마다 뽀얀 먼지가 목구멍으로 깊이 들어가지만 100년 전의 옛 기록들이 새로이 등장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던 그 순간이...

"기상청의 오래된 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며 옛 기록이 들어있는 캐비넷을 열어 보여주던 김장기님! 그 속에 일용편람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Fig.1. 일용편람

이 편람은 당시 기상본부인 인천측후소의 업무에 직접 필요한 역일(曆日), 기상, 지리에 관한 사항을 모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사용하도록 포켓북처럼 자그마하게 편찬한 것으로 와다박사가 1909년부터 매년 발행한 정기간행물이다. 현재 기상청에는 1913년에 출판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일본기상청 도서실에도 1909~1912년판 일용편람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제Ⅰ장에는 1912년의 해와 달, 시간 정보가 들어 있다. 당시 기상관측소인 12개소(성진, 용암포, 원산, 평양, 진남포, 강릉, 서울, 군산, 대구, 부산, 목포, 대련)의 월별 해뜨는 시각, 남중시각, 해넘이 시각, 달뜨는 시각, 달넘이 시각외에도 주간과 야간의 시간길이, 24절기의 일시, 3월과 9월에 관측된 개기월식의 관측시각, 장마가 시작된 날짜(6월 11일), 각 국의 표준시, 축제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연호와 서력기원 환산표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환산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Ⅱ장에는 1912년의 기상정보가 가득하다. 월별 평균기압,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풍속도, 평균습도, 우설량(강수량), 증발량, 여기에 극값으로 최고기압, 최저기압, 최

고기온, 최저기온, 최대풍속, 최대강수량, 최대증발량, 최소습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강수일수, 눈일수, 쾌청일수, 담천일수, 안개일수, 푹풍일수, 서리, 눈의 계절값도 기록되었으며, 조선 주요지의 기온, 서울의 우량, 결빙 기일, 산업기간 일람표가 들어 있다. 지금의 ‘ 기상연보 ’인 것이다.

제III장 지리부에는 조선의 동서남북 끝의 위경도가 나온다. 동쪽으로는 울릉도(130.54 E)까지, 서쪽으로는 압록강(124.13 E), 남쪽으로는 제주도 남단(33.12 N), 북쪽으로는 함경북도(43.2 N)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땅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여기에 조선근해의 해수면온도가 나오는데, 현재 동해는 ‘ 조선동해 ’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지방 행정 일람표에는 각 도의 면적과 인구수 가구수, 남녀별 인구수, 일본인, 조선인 등의 거주 인원이 상세히 나온다.

끝으로 제4장 잡부에는 각국의 도량형 간이 환산표, 섭씨, 화씨비교표, ㎜와 촌 단위 비교표, 조선기상 관측소 일람표, 천기(일기)예보 및 폭풍 경보 규정, 경보 신호 소재지 일람표가 나온다. 특별부록으로는 ‘ 조선측후사략 ’이라하여 와다박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고대 기후관측역사가 짤막하지만 감동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Fig.2. 경성 창덕궁 밖의 첨성대
(일용편람, 1913)

사진속의 계단 옆의 신사분이 와다박사일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 현재 이 첨성대는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건물 앞에 보존되어 있으나, 계단이 제거된 상태이다.

일용편람은 190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1945년까지 매년 발간되었으나, 현재 기상청이 소장한 자료는 다음해의 11년분이다 (1913, 1914, 1917, 1920, 1922, 1923, 1928, 1934, 1941, 1944, 1945년)

다음호에는
선각 기상인-와다(和田)는 바다를 좋아했다
를 게재할 예정입니다.